

##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박정현      서은국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인간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간관이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조건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사람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감정’과 같이 관찰되기 어려운 내적인 단서에 비해 ‘행동’과 같이 비교적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한 외적인 단서를 비중 있게 고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외모’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조건들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의 외적조건을 내적조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정서적인 안녕감이 낮게 보고되었으며 특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인간관, 행복의 조건, 주관적 안녕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들은 분명히 다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면의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 조건에 대한 신념, 즉 행복관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이 행복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개인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행복관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알아보는 선행 연구들은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개인적인 목표와 동기, 가치관을 탐구하는데 편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Oishi, Diener, Suh 와 Lucas(1999)는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하루 동안 무엇을 얼마나 성취하였는지를 더 비중 있게 고려하여 자신이 보낸 하루에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영역에서의 만족여부가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성취자체를 그

박정현, 서은국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소속되어 있음.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KRF-2002-003-D00446)과 연세대학교(2003-1-0408)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서은국,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화 : (02) 2123-2446,

E-mail : esuh@yonsei.ac.kr

들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성취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육체적인 쾌락의 만족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연구도 보고 된 바 있다(Oishi, Shimmack, & Diener, 2001). 나아가 Sheldon 과 Elliot(1999)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요한 목표나 개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자신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의 다양한 행복조건들을 정리,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Oishi 등, 1999; Emmons, 1986; Mischel & Shoda, 1995; Sheldon & Elliot, 1999).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만이 행복한 삶을 위해 추구하고자 하는 조건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Pervin(1996)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암묵적인 이론(lay theory)은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의 주된 부분이며 세상을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일례로 Nisbett(2003)은 사람의 “본질”(essence)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사람들의 지각과 사고과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entity)로 인식하느냐 혹은 변화될 수 있는 개체(incremental)의 차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 귀인 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Carol Dweck의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Dweck & Leggett, 1988). 즉,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와 같이 인간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귀인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여러 속성들에 대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이하 “인간관”)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행복의 내용과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에서 나타나는 많은 개인차들 중에서 한 개인의 핵심적이고 본질적 모습(essence)을 나타내는 단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고

자 한다. 여기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란 가장 왜곡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 즉 진수(眞髓)를 나타낸다. 사람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양식의 단서들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데, 하나는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외적인 단서(예, 행동)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운 내적인 단서(예, 감정, 생각)들이다. 일찍이 William James (1890)도 인간 존재를 외적인 속성을 띠는 물질적 자기(materialistic self)와 내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을 띠는 정신적 자기(spiritual self)로 구분하여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Wylie(1974) 역시 사적인 자아와 사회적인 자아의 측면을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가능할 수 있듯이, 사람에 대한 내·외적인 구분은 인간관의 여러 차원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온 차원이다(Banaji & Prentice, 1994; Baumeister, 1986; Brewer, 1991; Markus & Kitayama, 1991; Stryker,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단서들을 내·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두는 상대적인 비중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깊은 Andersen 과 Ross (1984)의 연구를 보면, 미국인들은 타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 행동과 같은 외적인 단서들보다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내적인 단서들이 타인을 이해하는데 더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보다는 내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Anderson, Lazowski, & Donisi, 1986; Anderson, Glassman, & Gold, 1998; Prentice, 1990; Johnson, Robinson, & Mitchell, 2004).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서구 문화구성원이 주된 대상이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Cousin(1989)이나 Suh, Diener, Oishi와 Triandis(1998)에 따르면 서구 문화 구성원들은 기질과 같은 내적인 특성을 통해 자아를 규명하려하지만 동아시아 문화 구성원들은 역할과 같은 외적인 특성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사람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문화에 따라 인간관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지극히 내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

악하고자 한다는 기존연구결과를 그대로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을 파악하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외적인 차원의 구분은 인간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외적인 목표(예, 부)를 내적인 목표(예, 개인적 발전)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낮은 주관적 안녕감이 보고되었으며(Ryan 등, 1999), 비슷한 맥락에서 내적인 목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경험을 예언하였지만, 외적인 목표는 낮은 안녕감 수준을 예언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Sheldon & Kasser, 1995).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내-외적인 차원의 구분은 행복 수준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내-외적 모습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각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조건의 내용들과도 관련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의 진수(essence)를 행동, 말투와 같이 눈에 쉽게 띄는 외적인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복도 외모,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과 같은 외적인 특성을 갖는 조건들의 충족을 통해 성취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나, 생각과 같이 내적인 단서를 통해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행복관 또한 내적인 내용의 것들이(예 : 자신감, 평안함)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예상 해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복관은 기존연구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개인적 가치나 목적 이외에도 각 개인의 독특한 인간관과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들의 실제행복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즉,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내적인 평안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행복수준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행복관과 그들의 실제행복 수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는 기존 연구는 없지만, 이들의 관계에 대해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Lyubomirsky와 Ross(1997)는 불행한 사람들

은 행복한 사람들에 비해 눈에 쉽게 띄고,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나타나는 사회비교 단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Updegraff와 Suh (2005)는 평소에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에 대해 평가할 때 상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단서에 의존하는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외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을 평가 할 경우, 자주 우울한 감정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연구들(Buntler, Hokanson, & Flynn, 1994; Fritz & Helgeson, 1998; Kernis & Waschull, 1995)이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해보면, 비교적 눈에 쉽게 띄고, 구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행복의 외적 조건들(돈, 외모)을 중시할수록 행복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모호한 내적 조건들(낙관적 태도, 열정)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일수록 비교적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

## 연구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인간관)을 알아보고, 이러한 인간관과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조건(행복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인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행동 과 같이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외적인 단서와 '감정'이나 '생각 과 같이 덜 표출되는 내적인 단서 중,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단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타인을 파악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관심사였던 행복관을 탐색하기 위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조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타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특징을 갖는 행복의 내적조건 네 가지와 타인에게 쉽게 표출되므로 객관적 확인이 용이한 행복의 외적조건 네 가지를 추출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선택된 내적 조건 네 가지와 외적조건 네 가지를 서로 대조시켜(내적 조건 4 외

적 조건 4), 피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얻어진 행복관과 개인의 실제 행복 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과 부정적인 정서경험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통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자신의 행복 또한 외적인 조건들의 성취를 통해 얻어진다고 믿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둘째, 행복하기 위해 외적인 조건들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을, 내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14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104명(69.8%), 여학생은 45명(30.2%)이었다

### 설문내용 및 절차

설문지에 제공된 각 문항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며 응답결과는 전체적인 익명으로 통계처리가 됨을 상기시킨 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줄 것을 설문 참여자들에게 부탁하였다.

### 사람의 내/외적 모습에 대한 생각(인간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간관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외적 단서)와 비교적 표출되지 않는 단서(내적 단서) 중, 어떤 단서에 더 비중을 두어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일컫는 인간관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동'과 같은 외적단서와 '감정'과 같은 내적인 단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일컫는다. 특히, 타인을 파악하는 사회 인지 과정은 인간에 대한 신념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Mead(1934)의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의 인간관을 살펴보려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타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 주관적이고 사적으로 경험되는 단서(예, 감정, 생각, 가치관)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이고 공적인 단서(예, 행동, 표정, 말투)중 어디서 상대적인 비중을 두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간관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피험자들에게 사람을 파악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되는 단서 중, 개인 내적인 단서와 외적인 단서를 고려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두 비율의 합이 10이 되게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내적인 단서와 외적인 단서를 동등하게 고려한다면, 두 단서의 고려도를 "5 : 5"와 같은 비율로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 행복관

인간관을 내-외적인 차원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행복의 조건 또한 내-외적인 기준으로 나뉘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내-외 차원으로 구분, 사람들의 행복관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행복의 외적 조건이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들 중,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쉽게 구분이 가능한 조건들을 일컫는다. 즉, 외적 조건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특성을 갖는 외적 자아를 발전, 강화시킴으로써 행복을 얻는 조건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Gordon(1968)은 자아를 내-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지위'와 '직업'과 같은 역할과 '외모', '소유물'과 같은 신체적 및 물질적 측면은 외적 자아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정서적 상태'나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은 내적인 자아로 구분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조건들을 추출하였으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조건들을 추출하고자 학부생 100명에게 행복의 내-외적조건들로 구성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한 후, 각자가 행복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예비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내적인 조건 네 가지(자신감, 열정/흥미, 편안함, 낙관적 태도)와 외적인 조건 네 가지(사회적 지위, 외모, 돈, 좋은 집안 배경)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행복관은 총 여덟 가지



표 2. 사람의 외적단서 고려도(인간관)와 행복의 내 외 조건의 중요성

	행복의 조건	상관계수
외적조건	외모	.33**
	사회적 지위	.26**
	돈	.24**
	좋은 집안 배경	.21**
내적조건	평안함	-.31**
	낙관적 태도	-.28**
	자신감	-.26**
	열정/흥미	-.20*

\*\* $p < .01$ , \* $p < .05$

차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개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 중,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람들의 인간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타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행동과 같은 외적인 단서와 감정이나 생각과 같은 내적인 단서 가운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두었는가? 흥미롭게도 사람을 파악할 때 내적인 단서들을 전적으로 더 중시한다는 기존의 서양 연구결과들(Anderson 과 Ross, 1984)과 달리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타인의 외적 단서와 내적 단서를 거의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적 단서 고려도=5.1; 외적 단서 고려도=4.9). 즉, 사람의 본질(essence) 혹은 진수는 주관적이고 사적인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내면에 전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전통적인 서구의 시각과는 달리,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사회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의 외적인 면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권마다 사람을 보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인간관과 행복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이 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표 2는 사람의 외적 단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과 여덟 가지 행복의 내 외 조건에 두는 중요성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람의 본질을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단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외모(.33)와 사회적 지위(.26)와 같은 행복의 외적조건들을 중요시하는 정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적인 단서를 통해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내면의 평안함(-.31)이나 낙관적 태도(-.28)와 같은 행복의 내적 조건들의 가치평가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람마다 행복의 성취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행복관의 개인차는 기존연구들(Oishi 등, 1999)에서 밝힌 가치나 목표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관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경험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행복관의 차이가 사람들의 실제행복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행복의 외적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할수록 낮은 행복수준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의 네 가지 외적 조건의 중요도를 평정한 평균치와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값<sup>1)</sup>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23, p < .01$ . 즉, 자신의 행복을 위해, 외적인 조건들을 비중 있게 고려할수록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네 가지 내적 조건의 중요도에 대한 평균치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행복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행복의 외적조건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적조건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적 낮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문제이다. 추후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은 행복의 8 가지 내 외 조건의 중요도와 행복수준 간의 보다 자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행복의 외적인 조건들 중 외모를 중요시하는 경향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25)와 정적인 상관이 보고된 반면, 삶의 만족도(-.17)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는 자신감(-.17)과 평안함(-.17)을 중요시 하는 정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의 외적인 조건들 중 특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

1)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와 부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를 표준화하여, 표준화된 삶의 만족도 점수와 긍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 점수를 더한 후 부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 점수를 뺐다.

표 3. 내/외적 행복조건의 상대적 중요성과 주관적 안녕감

	행복 조건	정적 정서빈도	부적 정서빈도	삶의 만족도
외적조건	외모	-.09	.25**	-.17*
	사회적 지위	.01	.09	-.01
	돈	-.12	.07	.03
	집안 배경	.10	.16	.09
내적조건	낙관적 태도	.15	-.07	-.10
	자신감	.04	-.17*	-.01
	평안함	.08	-.17*	-.01
	열정/흥미	.03	-.15	-.04

\*\* $p < .01$ , \* $p < .05$

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표 3 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분석 결과, 외모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후회(.26)와 화(.20)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빈도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좋은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역시 후회(.17)와 화(.20)와 정적인 상관이 보고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할수록 행복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같이 드러나는 외적인 단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간관” 역시 개인의 실제 행복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람의 외적인 단서를 고려하는 정도 역시 개인의 행복수준(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값)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17, p < .05$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사람의 외적인 단서를 고려하는 정도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빈도와는 부적 상관( $r = -.13$ )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빈도와는 정적인 상관( $r = .13$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는 인간관 자체도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추후 실험 연구 등을 통해 인간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경험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인간관과 행복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행복관과 실제 행복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사람들의 행복관을 알아보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단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인간관과 각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영역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관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적 가치나 목표에 초점을 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행복관의 내용이 인간관에서도 기인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비본질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단서에 비중을 두어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도 외모, 집안 배경과 같은 외적 조건들을 행복의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행복조건으로써 외적인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긍정적인 정서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의미는 행복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인간관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살펴보고, 행복조건의 내용이 실제 행복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외적인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생각을 경험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구 문화 구성원들은 사람의 본질이 전적으로 내면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Anderson & Ross, 1984), 이러한 서구적인 인간관을 기초로 현대 사회/성격 심리학 이론들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이 같은 내면 중심적 인간관을 토대로 한국인의 심리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외모와 좋은 집안 배경이라는 전형적인 “외적” 요소들이 행복의 최우선적인 두 조건으로 선택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일반인들이 평소 생각한 행복의 필요조건의 내용과 심리학적 연구들에서 내려진 결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외모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Diener, Wolsic과 Fujita(1995)의 연구에 의하면, 외모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매우 미약하다. 한편, 낙관성이나 자신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들이 좋은 집안 배경과 같은 개인의 외적인 조건들에 비해 실제 행복수준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밝혀주고 있다(Diener 등, 1999; Diener & Lucas, 1999). 즉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경험적인 자료들은 개인의 태도나 성격과 같은 “내적 자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실재로는 행복과 큰 상관이 없는 “외적 자원”들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외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왜 발생하며 나아가 이러한 생각들을 지속,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사람들이 소치한 인간관을 살펴보는 것은 행복감 이외에도 다른 여러 사회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례로 인간관은 타인을 지각하고,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내적인 단서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그들은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도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의도나 감정과 같은 기준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어떤 모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는 사람들의 행복관의 차이에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과정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Baumeister(1986)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결정하는 규범은 각 문화의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서를 통해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는지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시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Nisbett(2003)은 동아시아 문화 구성원들은 외적으로 구분 가능한 유형의 단서에 많이 의존하는 반면 서구인들은 그러한 단서에 의존하는 사고에 한계를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Nisbett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외적인 단서의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사람을 파악하고자 할 때, 내적인 단서 못지않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단서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은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는 데 있다. 전 세계에서 성형 수술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02. 10.17). 또한 외모는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실증적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박은아, 2002) 지금까지는 왜 한국인들이 외모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을 중요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인간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다시 말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단서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단서를 통해서도 인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은 외적인 자이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우리 문화가 낳은 인간관의 부산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외적인 단서를 통해서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하는 우리 내 인간관은 외적인 현상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결과는 무엇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지와 같은 행복관은 개인의 실제 행복수준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반면 내적인 조건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몇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를 정확히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Alicke 등(1995)은 자신이 추구하는 조건이 내적이고 추상적일수록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될 경향이 크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구체적인 수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될 경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에 비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한

다(Updegraff & Suh, 2005). 나이가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를 자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비교는 행복과 부정적인 상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yubomirsky & Ross, 1997). 즉 외적인 조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정된 '아름다움'과 '부'에 대해 실생활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주변인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들의 이상적인 수준은 항상 외부로부터 개인에게 주입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Brickman & Campbell, 1971).

이와 같이 특정한 행복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개인의 실제 행복수준과의 관련성은 중요한 함의점을 가진다. 우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목표달성 여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다루어 왔다. 다시 말해,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개인이 중요시하는 목표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사람들의 행복수준을 좌우한다는 간단한 논리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와 같은 목표의 내용도 사람들의 실제 행복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조건을 충족하기위해 실제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어떤 조건을 중요시하는지와 같은 인식자체가 행복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개인차를 살펴보았지만, 이를 비교 문화적인 차원으로도 확장하여 연구 할 가치가 있다. 인간을 보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Lillard, 1998), 이와 관련된 행복관도 문화마다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이론들은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서 높은 자존감이나 빈번한 긍정적 정서 경험과 같은 내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나(Suh, 2000), 사람의 외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생활하는 동양에서는 내/외적 요인들이 균형을 갖춘 행복관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외적인 행복 조건을 중시하는 사고 습성은 문화간의 행복평균차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교권의 국가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Diener & Suh,

1999). 본 연구에서는 외적인 행복의 조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낮은 행복감을 보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람마다 중요시 하는 행복의 조건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인간관'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삶의 다양한 조건들 중 어떤 것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연구의 한계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왜곡되지 않은 본연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할 때, 어떤 단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이 소지하는 인간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인간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방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즉, 피험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 볼 경우, 사회적 규범에 충실한 피험자들은 타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 내적인 단서를 중요시하며, 자신의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내적인 조건들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타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비슷하게 고려한다고 보고한 것은 그 만큼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하게 한다.

둘째, 행복의 여덟 조건들 중, 외모와 좋은 집안 배경이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중요시되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집단의 독특한 특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대상의 성비가 크게 차이 났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현상을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과 행복관을 측정할 때, 설문지를 통한 인지적 측정치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인지적인 측정 외에 정서적인 측정방법이나 행동적인 측정방법과 같이 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포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인간관과 행복관의 관계를 밝히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은아 (2002). '몸'의 시대, 아름다움을 찾는 소비자 심리. 한국 소비자 광고심리학회 심포지엄자료집, 49-60.
- 조선일보 2002.10.17. 보드리아르 눈에 비친 '이상한 나라'.
- Alicke, M. D., Klotz, M. L., Breitenbecher, D. L., Yurak, T. J., & Vredenberg, D. S. (1995). Personal contact, individuation, and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04-825.
- Anderson, S. M., Glassman, N. S., & Gold, D. (1998).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significant others, and nonsignificant others: Structure and processing of private and public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35-246.
- Anderson, S. M., Lazowski, L. E., & Donisi, M. (1986). Salience and self-inference: The role of biased recollections in self-inference processes. *Social Cognition*, 4, 75-95.
- Anderson, S. M., & Ross, L. (1984). Self-knowledge and social inference: I. The impact of cognitive/affective and behavioral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280-293.
-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 Baumeister, R. F. (Ed.). (1986).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New York: Springer-Verlag.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75-482.
- Brickman, P., & Campbell, D. (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M. H. Appley (Ed.), *Adaptation-level theory: A symposium*(pp. 287-302). New York: Academic Press.
- Butler, A. C., Hokanson, J. E., & Flynn, H. A. (1994). A comparison of self-esteem ability and low self-esteem as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66-177.
- Cousin,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213-229). New York: Russell-Sage.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30-141.
- Diener, E., & Suh, E. M.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pp. 434-450). New York: Russell-Sage.
- Diener, E., Suh, E. M.,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Wolsic, B., & Fujita, F. (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Emmons, R. A. (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58-1068.
- Fritz, H. L., & Helgeson, V. S. (1998). Distinctions of unmitigated communion from communion : Self-neglect and over involvement with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21-140.
- Gordon, C. (1968). Self conceptions :Configurations of content. In C. Gordon & K. J. Gergen (Eds.), *The self in social interaction* (Vol. 1, pp. 115-136). New York : Wiley.
- James, W. (1890/1962).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 Holt.
- Johnson, J. T., Robinson, M. D., & Mitchell, E. B. (2004). Inferences about the authentic self :When do actions say more than ment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615-630.
-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The interactiv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research and theory. In :M.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7).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Lillard, A. (1998). Ethnopsychologies :Cultural variations in theories of mind. *Psychological Bulletin*, 123, 3-32.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115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schel, W., & Shoda, Y. (1995). A cognitive-affective system theory of personality : Reconceptualizing situations, dispositions, dynamics, and invariance in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2, 246-268.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NY : The Free Press.
- Oishi, S., Diener, E., Suh, E. M., & Lucas, R. E.(1999). Values as a moderator i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67, 157-184.
- Oishi, S., Diener, E. Lucas, R., & Suh, E. (1999). Cross-cultural variations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 Perspectives from needs and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80-990.
- Oishi, S., Schimmack, U., & Diener, E. (2001). Pleasures and subjective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7, 153-157.
- Pervin, L. A. (1996). *The science of personality*. New York : Wiley.
- Prentice, D. A. (1990). Familiarity and differences in self- and other-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369-383.
- Ryan, R. M., Chirkov, V. D., Little, T. D., Sheldon, K. M. Timoshina, E., & Deci, E. L.(1999). The American Dream in Russia : Extrinsic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509-1524.
- Sheldon, K. M., &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82-497.
-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tryker, S. (1991). Exploring the relevance of social 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of self and society : Linking the cognitive perspective and identity theory. In J. A. Howard & P. L. Callero(Eds.), *The self-society dynamic : Cognition, emotion, and action* (pp.19-41).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h, E. M. (2000). Self, the hyphen between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63-86). Cambridge, MA : MIT Press.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82-493.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Updegraff, J. A., & Suh, E. M. (2005). *Happiness is a warm and abstract thought : Self-construal abstract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ledo, OH.
- Wylie, R. C. (1974). *The self-concept* (rev. ed., Vol. 1)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K C I

## **Lay Beliefs of Selfhood and Personal Theories of Happiness**

**Junghyun Park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When understanding other people, individuals differ in the extent to which they weigh the target person's inner (e.g., mood) versus external (e.g., behavior) aspects of the self. This epistemological value placed on the overt versus covert aspects of the self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type of personal theory of happiness held by each individual. Those who place a premium on the overt aspects of the self tend to cherish conditions of happiness that are relatively visible and easily observable by other people (e.g., social status). Interestingly, the tendency to emphasize external conditions of happiness is related inversely with actual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lay theories of self and happines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ulture.

**Key word : Lay beliefs, Selfhood, Theories of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원고접수 : 2005년 9월 12일  
심사통과 : 2005년 10월 22일